

서점가 휩쓰는 '아포리즘' 바람

'짧은 글 깊은 생각' 내세우며 부쩍 늘어...말장난 혐의 짙은 것도

최근 서점가에는 '아포리즘'이라 이름붙인 책들이 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혼에 쏟아지는 소낙비' '복잡한 세상을 사는 간결한 지혜' '이땅의 젊은 세대에게 띄우는 짧은 글 긴 생각' '젊은이에게 보내는 사랑의 아포리즘' 등의 부제를 단 일련의 책들이 그것으로, 부제의 요약된 설명에서 보듯 그 짧은 글 속에는 복잡하게 사는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들어있음을 암시해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아포리즘'을, 한자어로 옮기면 箴言. 바늘처럼 작고 짧지만 예리하게 핵심을 찌르는 말을 일컫는다. 엄격한 의미에서 잠언이 그 밑바탕에 교훈을 깔고 있다면, 아포리즘은 그 안에 함축적인 진리를 담고 깊은 생각을 가능케 해 잠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동안 국내 독자들에게 아포리즘의 형태로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읽혀온 것으로는 외국의 철학자 및 작가들의 것이 대부분.

그러나 최근들어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아포리즘은 앞서 언급한 고전들의 새로운 부각이 아닌, 국내작가들에 의해 씌어진 아포리즘들이어서 주의를 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국내작가로는 처음 본격적인 아포리즘의 세계를 열어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과, 좋은 말을 예쁘게 포장하거나 아포리즘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도 없이 상식적으로도 공감할 수 없는 정의들로 채워진 책들도 적잖게 뒤섞여 있어 주의를 요한다.

예의 그 바람을 조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은 시인 이성복씨의 「그대에게 가는 먼길」(살림)과, 역시 시인 김대규씨의 「사랑의 광세」를 꼽을 수 있다. 「사랑의 아포리즘 모음」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사랑의 광세」는 지난 2월부터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 진입, 최근 4위를 고수(종로서적 집계)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대에게...」 역시 지난 7월 초판 발행 이후 한달새 재판에 들어갔다.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집계에 올라

이같은 아포리즘 바람은 멀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빵장수 야곱」(김영사)에서부터 불어와 「사랑...」과 「그대...」이 두책을 중심으로 최근에 출간된 「어느 셸리만의 명상일기」(우리시대사) 「표류하는 나를 찾아서」(늘푸른집) 「칼릴 지브란의 영혼의 소리-큰 바다」(소담출판

사) 「동해아포리즘-메마른 삶의 간이역에서」(동해) 등 10여권을 배경삼으면서 아포리즘군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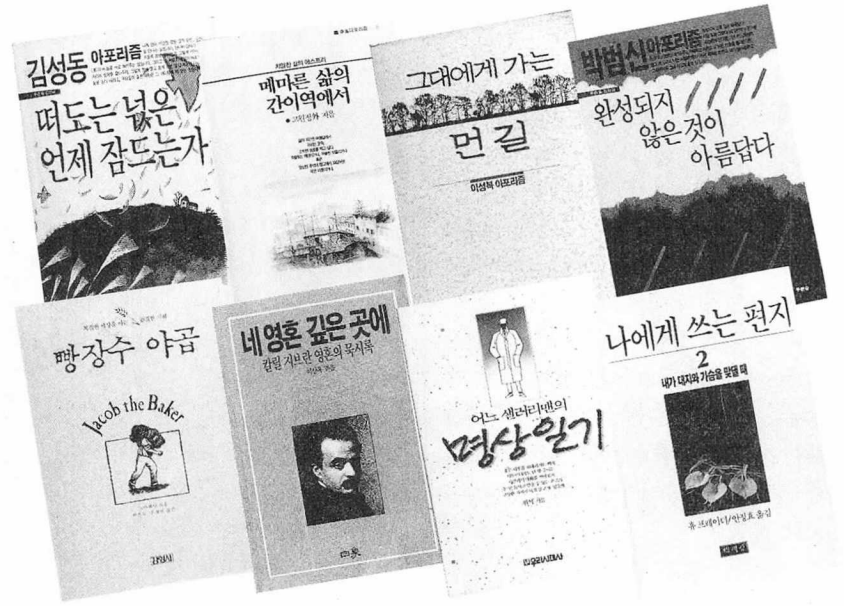
「그대에게 가는 먼길」은 시인 이성복씨가 지난 77년부터 90년까지 틈틈이 적어왔던 아포리즘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시의 '임시장치'로서 단상이 떠오를 때마다 시작수첩에 메모했던 것들의 모음이지만, 세계와 존재, 신과 사랑, 문학과 허무 등 삶의 여러 덕목들에 대한 시인의 깊은 고뇌를 담고 있어 오히려 시보다 더 응축적이다. 한 시인의 치열한 정신적 순례기로 시와 상보적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이씨의 아포리즘은 본격적인 아포리즘의 세계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국내 시인·작가들의 아포리즘을 모은 책들이 최근 서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진정한 아포리즘의 정신적 깊이를 담고 있는 것 못지 않게, 단지 좋은 말을 예쁘게 포장했을 뿐인 것도 적지 않아 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랑의 광세」는 현재 모 스포츠신문에 연재중인 김대규씨의 사랑의 아포리즘 모음. 「사랑은 모든 예술뿐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주제」라고 말하는 저자가, 어떤 하나로 정의내릴 수 없는 끝없는 사유의 미궁이라 일컫는 사랑에 대해 정의내린 것. 5부까지 구성, 사랑의 정의, 사랑의 실천, 사랑의 고뇌, 사랑의 결실 등으로 구분해 그의 생각을 모았다.

「어느 셸리만의 명상일기」는 서울보건전문대 윤리과 강사로 있는 원석씨가 삶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절실히 깨달았던 생각을 정리한 것. 독학과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대학원을 마치기까지 남달랐던 인생역정을 바탕으로 한 단상 700여편을 모았다.

「빵장수 야곱」은 사려깊은 빵장수 야곱이 주변사람들에게 작은 종이쪽지에 적어주었던 간결한 이야기로 인생의 목적과 질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포리즘. 랍비인 저자 노아 벤자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책은 지난해 발간한 후 38판을 거듭하여 현재까지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책이다.



18년에 걸쳐 씌어졌으며 마치 동양의 선문답 같은 단순명쾌함과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예지로 가득 차 있어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작품.

사고의 단편화 조장하는 말장난도 적잖아

국내작가들의 아포리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도서출판 푸른숲이 '푸른숲 깊은글'이라는 시리즈명 아래 국내 유수작가들의 아포리즘을 기획하고부터. 김성동, 신경림, 김정환, 황지우 등 10여명의 작가들의 아포리즘을 계속해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몇 작가에만 그치고 말았다. 시나 소설처럼 아포리즘을 하나의 장르로 정착시켜 보겠다는 출판사측의 의지와는 달리, 아직 우리 작가들이 아포리즘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았고,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이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 내밀한 생각의 자락을 내보인다는 것을 그리 달갑잖게 여겼던 까닭에 김정환의 「지금 사랑에 들뜬 그대여」와 김성동의 「떠도는 녀은 언제 잠드는가」, 박범신의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름답다」 등 기존 산문이나, 작품집에서 아포리즘에 근접한 글들을 골라 뽑아 만드는데 그쳤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나온 이성복의 아포리즘은 작가의 아포리즘의 가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측면들을 동시에 지적받으면서도 그럼에도 아포리즘의 진수를 보였다는 데선 이론이 없는 듯하다. 더구나 이를 계기로 다른 사람들의 수준높은 아포리즘에의 기대 또한 높아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의 맞은편에는 그러한 성과의 걸포장을 빌려입은 가짜아포리즘도 어김없이 등장, 더 많은 대중적 호응을 받음으로써 문제를 낳고 있다. '칭찬은 질투의 외투, 증오는 질투의 내복' '사랑에 빠져있을 때는 눈을 뜨지 마라. 환상이 너를 서운케 하리라' '사랑엔 휴일이 있지만 질투엔 공휴일이 없다' 등의 사랑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정의로만 일관하고 있는 사랑의 아포리즘이 그것.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깊이 사고하게 하는 아포리즘의 미덕은 온데간데 없고 말장난에 가깝거나 별로 보편적이지 못한 정의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사고의 단편화를 조장하고 언어의 유희나 말의 재치에 매몰되게 한다는 것이 이런 류의 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특히 이들 책의 주 독자층이 이성에 눈뜬 무렵의 남녀중고생들이어서 무비판적으로 그러한 정의들을 받아들여 가치기준으로 삼는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잘 팔리는 분위기에 편승, 실제 내용은 전혀 아포리즘과 상관없는 글뭍음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아포리즘 시리즈로 이름한 출판사들의 저급한 상황에도 지적되고 있다.

훌륭한 한구절의 아포리즘은 범속한 일상에 신선한 자극이 되게 한다. 짧음으로 해서 더욱 요구되는 생각의 정제나 고도의 함축, 특히 작가 자신의 정신적 고투의 산물이어야지 짧다고 해서 쉽고 가볍게 씌어져서도 안되며, 그런 글은 경계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 정혜옥 기자